

그리스도인 12.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이다.

Christian 12. A Christian is a converted person.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이다.

1. 회심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보자. 그는 자기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써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돼지들이 먹는 곡식껍질로 배를 채우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며 맞아주었다. 이렇게 그 아들처럼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회심이다.

주는 마음을 본다(삼상 16:7). 입으로는 주께 가까이 나아오지만 마음은 멀다(마 15:8-9)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그분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다.

•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ure, 고후 5:17)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다.

• 그리스도인은 전에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난 자다(엡 2:1).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엡 2:5)이다.

•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찾아진 사람(was lost, and is found.)이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 하더라.(눅 15:32)

• 그리스도인은 눈멀어 보지 못했다가 이제는 보는 사람(요 9:25)이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다. 빛이 없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형편도 모르고 갈 방향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리고 있다(고후 4:4-6).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다.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는 한 때 잃어진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고(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본다.’(Was blind, but now I see.)

3. 회심한 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완전한 것이다.

회심하기 이전 사람은 다음과 같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²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³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엡 2:1-3)

•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식물인간과 같다. 이것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심각성,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떤 활동도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한다.

• 그는 **속은 사람**이었다.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향으로 형성된 종교, 과학, 문화, 교육, 법, 마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말한다.

• 그는 **불순종하던 사람(the children of disobedience)**이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그는 **더럽혀진 사람**이었다. 육신의 욕심(the desires of the flesh)을 따라 행하므로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말, 행동,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 그는 **파멸당할 사람**이었다. 진노의 자녀(the children of wrath)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

이런 사람이 회심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낫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²⁰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사, ²¹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²²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엡 2:19-22)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동료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훈에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공훈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엡 2:4)

이런 공훈, 사랑, 은혜를 실감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그러므로 회심은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회심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며 또한 회개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다. 바뀐 사람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